



지역 기술발전 위해 혼자 힘으로 세미나 주관하는
강원도 하진부 태극당 이대형

PEOPLE & PEC

8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십여명의 사람들이 땀어리는 열기 때문인지 모두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한 곳을 집중된 그들은 실내의 유관수관한 열기는 개의치 않는 표정이다. 오히려 서로의 체취를 느끼면서 몸을 부딪히는 일에 익숙한 표정이다.

"세미나를 직접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낙후된 지역 기술을 한 톨기 끌어올리게 위해 시작했는데 모두들 열심히 참석해 주어서 보람도 느낍니다." 이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는 이대형 씨의 설명이다.

그가 이곳 요양산 밑에 있는 하진부에 자리를 잡은 것은 벌써 6년 전이다. 일년 내내 관공격이 분리는 곳이지만 비싼 정보에는 늦은 새물이다. 새로운 유관을 들고오는 관공격에 비해 이곳의 주민은 미망 순박하고 마음 따뜻한 순수한 일 반이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속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대형 씨가 말렸고 나서기로 한 것이다.

"원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은 지역 기술자를 대상으로 변질하 기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로 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멀리 강릉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0분 거리에 있는 강릉에서 땀 만드는 것을 배우기 위해 집까지 걸리지 않고 오는 주민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시간을 쪼개 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다. 안영기씨에 있는 김영석씨다.

김영석씨는 지가 20년 전 라플랑에 근무할 때 만난 친구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강원도에서 삼라사파 하면서 신제품 정보도 알려주고 제품 지도도 해줍니다. 자카일 같이 신장사주는 친구 덕분에 계속러져서 안고저도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강원도에서는 페이스트리가 인기다. 앞으로는 무스케이크나 쇼트케이크를 만들어 판매할 생각이다.

강원도는 세미나를 유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외출하고 해도 좀처럼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역 기술이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가 우리 지역 기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 이곳도 원만한 시민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대형 씨가 말하는 앞으로의 계획이다.

항상 서서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제과인에게 건강은 중요 사항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운동하거나 '과우 산악회' 를 조직해 등산으로 몸을 다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많지는 않고 1년에 한번 정도 체육대회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한달에 네 번 축구를 통해 화합과 몸을 다지는 곳이 있다. '부산제과축구연합회' 가 그곳이다. 그리고 이행웅 씨는 이곳의 회장이다.

"지난 4월 창립했고 업주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제과협회 14개 지부 중 9개 지부 축구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 창립된 축구 연합회는 제과인의 체육대회를 위해 7년전부터 각 지부마다 생긴 축구부가 모태라고 전한다. 현재 부산제과축구연합회는 제과협회 소속이 아닌 별도 기구이지만 불가분의 관계이기도 하다.

이번 부산제과축구연합회가 창립된데까지는 이행웅 씨의 공이 컸다. 연합회 결성 취지를 각 지부 축구단마다 설명하고 창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도맡았다. 이런 열성을 보인 데는 그가 젊어서부터 운동을 유독 좋아했고 다른 축구 조기회에는 오래전부터 관여해 온 축구에 대한 열의와 관계가 깊다. 실제로 주위 사람들은 적지 않은 나이에도 젊은 사람 못지않은 체력과 열의를 보이는 그에게 감탄의 눈길을 보낸다.

"현재 각 지부끼리 한달에 4번 정도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에 두세 차례 각 지부가 모두 모여 서로 경기를 갖는 연합회 차원의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행웅 씨는 이를 계기로 축구단의 경기력이 향상되면 제과인의 대표팀을 구성해 타 단체와도 친선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타 지역 제과인도 화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축구단을 조직했다면 좋겠다며 창립에 대한 준비 사항 등 문의점이 있으면 부산제과협회로 연락 바란다고 전했다.



등근 축구공에 화목과 건강이 영근다
부산제과축구연합회장 이행웅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행동을 진정한 용기로 평가한다. 인간애를 다룬 이야기에 진한 감동을 느끼는 것은 그런 진정한 용기에 대한 흠모라 할 수 있다.

본지가 지난 1월부터 펴고 있는 '사랑 나누기(본지 88쪽)'에는 고단한 삶을 힘겹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가 실린다. 땀처럼 훈훈한 인정이 사회에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된 이 지면은 '진정한 용기'를 보이는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알차게 꾸며지고 있다. 고재영(27)씨도 이런 독자 중의 한 사람이다. 투박한 검정색 뿔테 안경 속의 눈은 미소년처럼 반짝인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적은 액수가 부끄러웠죠. 그러나 이것도 모아지면 큰 금액이 되고, 설사 모아지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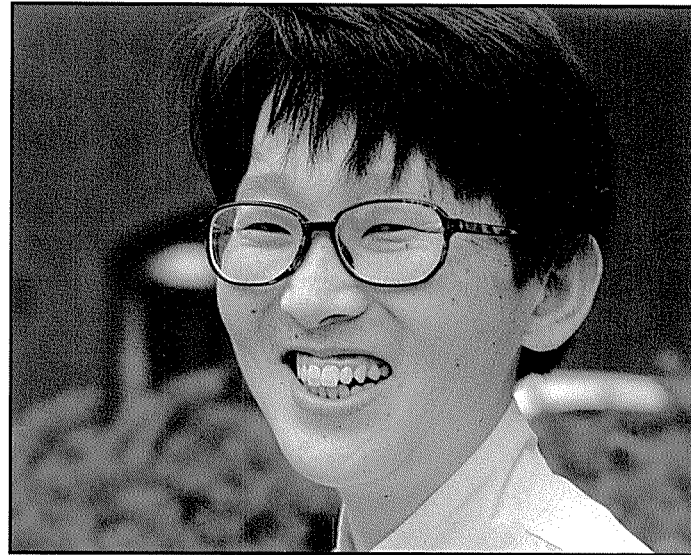
그는 지난 2월과 5월 본지 '사랑 나누기' 코너에 소개된 사당동 '사랑손' 과 수원 '함께 가는 우리'의 후원자로 등록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번에 두 곳을 후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고재영 씨가 처음이다. 그는 전북 김제농고 식품가공과를 졸업했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 곧바로 제과 기술자로 뛰어들었다. 부산 밀타에서 5년 동안 첫 직장생활을 보냈고 그후 약 2년 동안 서울 63 베이커리와 올리브제과를 거쳤다. 서울 직장생활 기간 동안 그는 특히 세종대 부설 사회교육원 베이커리과정을 1기로 수료했다. 현장경험은 많지만 기초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사회교육원을 수료한 후 그는 같이 과정을 마친 동료들을 모아 모임을 만들었다. 모임의 갖가지 뒤통사까지의 역시 그의 몫이다. 총대(?)를 맨 그의 노력 덕에 모임은 사회교육원을 수료한 모든 사람을 회원으로 둘 정도로 커졌다. "월간 베이커리가 업주뿐만 아니라 현장 기술인들의 각종 모임을 소개하고 격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사람답게 그가 바라는 것이다. 매월 독자엽서를 보낼 정도로 성실한 독자이기도 한 그는 '사랑 나누기'가 제과업계에 널리 확산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도 덧붙인다.

"가게일에 하루종일 매달리다보니 정서가 메말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 나누기' 코너는 신선하게 느껴져요. 이웃을 생각하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메마른 정서에 단비를..."

'사랑 나누기' 후원자 고재영



LE



"프로를 향한 몸짓, 그녀는 아름답다."

(주)삼립유지 기술지원팀 **한현주**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한 제과인 모임의 기술세미나에서였다. 그녀는 신세대답다. 비교적 여성 인력이 드문 베이커리업계에서 그녀의 홀로서기는 상큼한 레몬향을 발하는 듯하다.

그녀는 입사한지 이제 막 10개월째로 접어드는 풋풋한 새내기이다. 삼립유지 기술지원팀 인력은 모두 3명. 그녀는 주로 호텔 베이커리쪽 업무를 담당한다. 또 기술지원팀의 유일한 홍일점이기도 하다. 한현주(26)씨는 고교 2학년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 팬실바니아에서 고교를 마친 후 곧바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대학에서 인테리어 디자인학을 전공했다.

대학을 마치고 94년 귀국, 현대그룹 아산재단 산하 중앙병원 홍보과에 입사했습니다. 대우도 괜찮고 전공과 어울리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무척 만족했죠. 그러나 무언가 이걸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더 새롭고 창조적인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결정한 것이 영국행이었습니다."

그녀가 영국행을 결심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비로 제빵기술을 배우려 했던 것이다. 당시 그녀가 유학을 결심한 곳은 영국에 소재한 '코든블루'라는 제과학교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코든블루는 프랑스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 제과기술학교입니다. 당시 전 미국에서 공부한 덕분에 어느 정도 영어에 익숙해 있었고... 그래서 택한 곳이 영국에 소재한 코든블루 분교였죠."

당시 그런 그녀를 부모님은 무척 반대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 딸을 보내는 것도 그러려니와 좋은 직장 마다하고 다른 길을 찾으려는 그녀의 모습이 부모님에게는 큰 불안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녀는 영국에서 거의 10개월 동안 홀로 하숙, 선진국의 제빵기술을 배우며 서서히 그녀의 목표를 이뤄갔다. 그처럼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그녀만의 향기가 지금의 그녀 주위에 행복으로 넘쳐난다. 일의 특성상 비교적 제빵 기술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녀는 "베이커리 업계 기술인들의 독특한 근성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러한 근성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원동력 아니겠나 싶어요"라고 말한다. 또한 "외국 기술자들의 프로정신은 우리의 배울 점입니다. 그들은 캔디 하나 하나를 제작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합니다"라며 기술인으로서의 직업정신을 새롭게 다짐해 보기도 한다. 먼 장래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Kids) 베이커리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는 한현주 씨. 그녀는 프로가 되고자 한다. 그래서 그녀는 아름답다. 아름다움은 신께서 여자에게 부여한 특권 이기에...